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한국 교회 강단의 변혁과 성장’ 주제아래 제3회 3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

9월 5일(월) 오후 1시 개강, 총 9주 동안

충현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이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목회자세미나 제3회 3학기가 오는 9월 5
일(월) 오후 1시에 개강하여 11월 14일
(월)까지 총 9주간 동안 실시된다.

금번 학기에는 제1교시(오후 1시 - 2
시 30분)에는 지난 학기에 이어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2)가 있
고, 제2교시(오후 2시 50분 - 4시 20분)
에는 ‘한국 교회강단의 변혁과 성장’에
관한 여러 목사들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 강사는 이동원, 김삼환, 하용조, 임
석영, 홍정길, 김준곤, 나원용 목사, 정장
복 교수, 김경태 장로 등이다.

교회는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들의 영성개발과 성장을 돕
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을 개설하여 지난 1990년 가
을에 제1학기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
속되고 있다. 매 학기마다 1,000여명의

전국 목회자가 모여 강의를 듣고 친교
를 나누며 목회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 참가하고자 하는 목회
자는 9월 5일까지 교회 교육국(전화
552-8200 (교)504, Fax 567-6073)에 신청
하면 된다.

시간	제1교시	제2교시
일자	13:00~14:30	14:50~16:20
9월 5일	성경강해 마태복음 강해(1)	강단설교와 삶의 적용 이동원 목사 트리니티신학교 신교학박사, 현 최성동 한국지구촌교회 담임
9월 12일		교회성장을 위한 설교 김삼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현 명성교회 담임
9월 26일		설교와 유모어 김경태 장로 (코메디전망대 진행) 전 TBS, KBS, MBC 방송위원, 현 마포장로교회 장로
10월 10일		새신자가 교회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하용조 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현 은누리교회 담임
10월 17일	신성종 목사	교회성장을 위한 공동체 역할 임석영 목사 총신신학대학원 졸업, 현 고덕중앙교회 담임
10월 24일		한국 교회강단의 전망 홍정길 목사 총신신학대학원 졸업, 현 남서울교회 담임
10월 31일		교회성장장과 연간 설교 계획 정장복 교수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교 신학박사, 현 장로회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
11월 7일		한국교회 현실과 비전 김준곤 목사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현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11월 14일	현 충현교회 담임목사	예배와 설교 나원용 목사 예모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현 종교교회 담임

제직사진첩 발간

교회는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으며 기획,
진행하던 제직사진첩을 발간했다. 이 제
직사진첩에는 원로목사, 당회장, 원로장
로, 장로, 부목사, 협동목사, 전도사, 교육
강도사, 교육전도사, 명예전도사, 선교사,
원로집사, 장로파택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서리집사(남,여)의 사
진이 수록되어 있다.

새가족 양육부, 8월 29, 30일 양육부 수련회

새가족위원회 양육부는 오는 8월 29, 30
일 양일간 갈릴리홀에서 양육부 수련회
를 갖는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양육부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수련회를
통해 정리하게 될터인데 이번 수련회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민경운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대상은 새가족 양육위원 및 교구양
육위원, 23개 교구지도 교역자 및 교구
장이다.

충현기도원, 8월 22~25일 까지 여름산상부흥성회

충현기도원은 8월 22일~25일까지 부흥
성회를 갖는다. 8월 22일(월) 저녁 8시부
터 25일(목) 저녁 까지 모일 산상부흥성
회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가 강사
로 나서 매 시간을 인도하며 오전 5시
새벽기도회,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8
시 부흥회로 모이게 된다.

금요집회 - 9월 2일부터 재개

그동안 무더위와 여러 가지 행사로 쉬
어온 금요집회가 오는 9월 2일 오후 8시
부터 다시 시작한다.

9월부터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
며 1부 찬양시간은 대학·청년 중심의
찬양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찬양인도도
대학·청년 1·2부가 주관하게 된다.

'94 예수사랑 큰잔치

앞으로의 진행계획

.....

'94 예수사랑 큰잔치의 준비위원회에
서는 앞으로 진행계획을 정리하여 발
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진행계획
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1. 금요집회 - 9월부터 대학· 청년 중심의 찬양시간

· 9월 집회부터 1부 찬양시간(오후
8-9시)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
로 진행된다. 따라서 집회의 인도와
안내 등을 대학부와 청년 1·2부에서
담당한다. 많은 대학 청년들이 참여
하여 찬양의 불을 붙인다.

2. 초청집회 - 10월 11~15일

·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의 특성은
초청집회이다. 잔치 당일에 모든 새신
자들 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주간중(10월 11-15일) 초청집회를
실시한다. 초청집회에는 간증과 특별
찬양이 있다. 초청집회 강사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 이 시간에 작성된 태신
자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회
망자는 등록을 받도록 한다.

초청집회는 직장인을 위해 11일

(화), 13일(목), 14일(금)은 오후 7-9시
에, 여성도들을 위해서 12일(수), 15일
(토)은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에
모이게 된다. 12일(수) 저녁 수요일에
는 현행대로 오후 7시에 드린다.

3. 10월 16일(주일) - 행사 당일

1) 새벽기도회 : 이 날은 오전 5시
에 한번만 모인다.

2) 주일예배 : I - IV부까지는 현
행대로 드리고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태신자는 이 시간에
함께 참석토록 한다.

3) 찬양예배(새가족 환영을 위한
잔치) : 현행대로 오후 5시에 드리며
모든 태신자들 데리고 와서 함께 참
석토록 한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

4) 교회학교 : 자체계획에 따라 교
회학교 별로 실시하고 교사와 학생들
이 찬양예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교구모임 : 이날은 교구모임을
가지지 못한다. 예배후 집에 돌아가
태신자를 데리고 저녁 찬양예배시에
참석한다.



찬양대 연합 여름수련회 가 지난 8월 15-17일까지 2박 3일간 중주 수안보
한일유스호스텔에서 모였다. 모처럼 7개 찬양대
원과 3개 연주대의 많은 인원이 함께 모였다.이번 수련회에서는 부흥회와 특강 등으로 찬양
대원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친교 시간등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하나되는 시간 등을 가졌다.

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교회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생대에 존재하였던 공룡이 지금은 살아 있지 않고 멸종된 것은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시대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에 따라 옷을 다르게 갈아입듯이 교회도 시대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으려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1. 왜 교회는 변화되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앨빈 토플러가 말한대로 제3의 물결인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만이 변하지 않고 기존의 틀을 고수하며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룡이 왜 살아남지 못했는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공룡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로 기록되고 있음에도 결국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종되었습니다. 중세에 황금기를 이루던 유럽의 교회가 죽은 것도 바로 이 계속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이 한국에도 이미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2. 교회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시대마다 변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철의 옷이 있고, 겨울철에는 겨울의 옷이 있습니다. 옷을 바꿔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1)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소단위, 가정중심, 직장중심의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모이는 데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였으면 은혜를 받고 이제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2)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에산부터 목회철학을 가지고 새롭게 짜야 합니다. 살찌면 고혈압에 걸리고, 풍에 걸리고,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결국 공룡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받기만 하려는 회생없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 목사활동 중심의 단세포적이고 권위적인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민주적 교회, 섬기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평신도 운동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참된 목회철학이 나옵니다. 첫째로 평신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평신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참 목회는 온 교인들이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혼자서 다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4) 고백적 신앙에서 생활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일성도는 많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성도는 간 곳이 없는 것은 생활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가장 바른 신앙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머리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5) 기독교 문화가 창조되어야 한다

문화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흑백논리는 위험합니다.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있으며 좀더 정확하게는 서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대로 기독교회는 문화의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뿌리내릴 역사적 민족적 책임이

있습니다.

(6) 무엇보다도 목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한다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장로들이 변하고, 교인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할 때 우리 사회가 변합니다. 교회는 목사 이상의 비전이나 신앙이나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부터 변해야 합니다.

(7) 선교정책이 변해야 한다

자기 과시적 선교는 최악입니다. 먼저 서양이 추구했던

충현강단



변혁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성종

<목사·당회장>

종교적 제국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저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8) 치유목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설교목회, 심방목회, 교육목회도 중요하지만 치유목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치유목회란 전인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질병에서 회복케 하고, 가난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신앙의 응답이요,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치유할 내용은 영적 치유, 감정적 치유, 정신적 치유, 육체적 치유입니다.

3. 교회가 변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1) 목사가 먼저 변해야 한다

목사가 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학교육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삼백 개가 넘는 무인가 신학교는 정리되어야 하며, 각 신학교는 미국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중심과 가족사 중심의 인간교육을 하지 않고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대함 치스맨에 의하면 현재 신학교육은 다음 몇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학문적 패러다임(중세

의 모형으로 신앙없이도 신학을 하게 한다), 수도원적 패러다임(인위적이며 현실과 너무도 다르다), 훈련 패러다임(교회의 존재보다 과업에 더 강조점을 둔다), 제자도 패러다임(제 3세대에서 인기,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불가능하다) 등입니다. 문제는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사들의 재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명감 없고 자격 없는 목사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인가 신학교에서 국적 없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2) 설교가 변해야 한다

부흥사들의 무당굿하는 식의 부흥회는 자제되어야 하고, 기복적인 설교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인격변화에 있으며 생활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해식 설교가 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강해식 설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성경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골고루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소 성경공부식의 지루함을 줄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뿐만 아니라 본문이 교훈하는대로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도 교리적인 설교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3) 교회의 행정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 각교단은 교권주의자들이 잡고 있으며 이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지배 내지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물질적 부패가 너무 심합니다. 당회도 자제하는 데서 섬기는 자세로 변하여 지금 종신제식에서 삼년하고 일년 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민주적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한 권위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4) 교단이 연합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를 보면 교단들끼리의 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로 성경을 양분하려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선교는 교단중심이 아닌 복음전파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중국과 필리핀 등 몇 곳에 그런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5) 교회가 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충만과 함께 생활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문화창달에도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4.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종교의 사회인 것을 유념하고, 종교간의 싸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평신도 훈련이 각 교회마다 정착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들을 깨워서 교회안에 사장된 일꾼들을 사회의 구석구석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현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지기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행하는 제자화 훈련 등이 보다 확산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셋째로 교회성장이 보다 내실화되고, 총체적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인데 너무 치중하면 내실화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의 내실화는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미스마의 영적 각성 즉 회개운동을 일으켜 신한국 건설이 정치적이 아닌 성서화운동으로 변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통일신학이 수립되어 통일조국이 하루 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신앙과 교회사랑과 나라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전개해야 할 운동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조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서글픈 전철을 밟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점점 더 창대해져 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황무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서



척박한 선교지 현실에서 사랑의 빛만 잔뜩지고

하 대선

(장로, 선교위원회위원장)

1. 남쪽의 섬나라로

1994년 7월 25일 오후, 선교연구원 단기훈련팀 14명은 384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서울을 뒤로, 상하의 섬나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71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서만수 선교사님이 23년 동안 땀흘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인구 1억 8천만의 인도네시아는 회교도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이슬람 문화의 나라이며, 8천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1만 4천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도서국이라고 한다. 게다가 말레이제를 비롯하여 약 300여의 종족이 수많은 언어를 구사하며 모여 사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능히 상상하고 남음이 있다.

식육, 목재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인당 GNP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빈곤 못지않게 영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기내에서, 앞으로의 선교전략을 화제로 토론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당장 필요하게 될 몇마디의 인사말과 일상 용어를 현지말로 암기하는 배려치기의 공부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Selamat Pagi(아침인사)', 'Terima Kasih(감사합니다)' 등의 서투른 말들이 현지인과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대화와 언어학습의 사이사이에 두번의 기내식이 제공되고, 한편의 영화를 관람(대부분의 승객은 눈감고)하는 동안 어느덧 7시간이 지나 적도 넘어의 자카르타에 가까워지니, 기장의 기내방송이 들리는데 "현지시간은 2시간의 시차로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야 되고, 현지일기는 개였으며 기온은 27°C"라는 말에 잠시 귀를 의심하였으나 내려서 확인하니 요사이는 전기라서 비도 없고 비

교적 서늘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더운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느냐"고 위로하던 서울의 가족과 교우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 선교의 현장

선교지를 방문할 때 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선교의 현장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몇배나 더 고생하시며, 몇배나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느끼는 것은 이 나라의 현재가 이러하니 23년전에 선교사님이 첫발을 들여놓으셨을 때 오죽 험악하였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사모님과 함께 흘리신 땀과 눈물이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까만, 최근에 출판된 서선교사님의 저서 「남방에 심은 노래」에서도 페이지마다 그 고난의 발자취를 읽을 수 있는바, "...이들에게는 개가 짓지 않을 만큼 조용히 접근해야 한다. 노랑 바탕에 분홍 그래픽으로 '사랑'이라고 쓴 요한복음을 나누어주며 사랑의 편지나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라고 권한다. 꼭 읽으라고 강요하는 인상을 주면 그들은 자존심 상해서(문맹자의 경우 더욱 심해) 쫓아버려든지 남의 것까지 거두워 불태워 버리는 경우가 있다. 선교사는 모름지기 매사에 살얼음을 밟는 긴장속에 있을 뿐이다(P. 187)."라고 쓰신 대로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긴장의 연속이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게 피땀으로 뿌린 씨앗들이 25년이 지난 오늘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다.

첫째로,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인도네시아 선교기지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성인 4백

여명이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에 넉넉한 규모로 허락하여 주신 예배당과 부속건물도 훌륭하였지만, 그보다도 교회의 튼튼한 조직과 질서있는 추진력, 특히 여성적분자들의 잘 짜여진 역할분담과 헌신적인 봉사의 자세에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이러한 연합의 힘이 그 어려운 이슬람의 섬나라에서 선교의 믿음직한 기반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둘째로, 배타적인 회교권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꾸준히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여, 오늘날 오직 69개의 현지인교회를 지교회로 세우고, 이들을 통하여 미전도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심령 한 심령씩을 어렵게 주님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눈물겨운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꺼질줄 모르는 선교에의 열정

이번에 우리팀이 봉사한 '후기연합 성경학교'의 주제는 「선교하는 우리교회」였고, 주제찬송은 '복음의 나팔을 불자'였으며, 3일간에 걸친 일정표의 전과정이 '선교'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보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철저히 일깨워주려는 서선교사님의 굳은 의지와 그 목회방침을 한결같이 실천해 나가는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모습들에서 배우는 바가 컸다.

또한 오는

9월 28일부터 우리 총현교회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제목회자 세미나에도 30명의 현지 교역자와 함께 정부의 종교성교 위급 연계를 참가하도록 추진하는 등, 현지 교역자의 재교육에도 특별한 의욕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장차 현지인 교역자 육성을 위한 신학교의 설

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며 착착 준비를 진행하고 계신 현황을 건문하면서, 남국의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쉬임없이 불타는 선교에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사랑의 빛을 지고

선교훈련을 겸하여 서만수 선교사님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성경학교를 위하여 작은 봉사나마 도움을 드리려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8박 9일 동안의 전일정을 통하여 한결같이 우리 일행의 생활의 시종을 자상하게 돌보아주신 선교사님 내외분과 새벽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숙소인 선교관에 나오셔서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백권사님,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부서별로 분담하시어 끼니마다 배불리 먹여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파사로운 사랑과 정성에는 우리 일행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빛만 잔뜩 걸머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 글을 맺음에 있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길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의 평강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및 69개의 현지인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영 태

임 경 숙(청년2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보지 못하며

말 못하며

표현 못하는 저들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웁기에...

손 발 입이 되어주어야 할 내 육신은

그들을 향해

바비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땀흘리며

내 대신 아파해주는

저들의 온 몸을 끌어안고 통곡하고픈데

나는 행할 수 없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하여

그 사랑 느끼지 못하는 무지한 자아에게...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품으셨습네다

그들과 한 몸되어 주님께 영광돌리는 삶으로

주님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나를 잉태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었다고



▲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어린이들과 함께

토막소식

- ◆ 유치부는 8월 21일(주일) 반별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한다.
- ◆ 초등2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30일에 갖기로 하고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초등3부는 9월 4일 학생 헌신예배로 드린다. 이날은 사회, 기도, 안내, 헌금 등이 모든 순서를 학생이 담당한다.
- ◆ 초등5부는 방학중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체험담을 모집하고 있다.
- ◆ 초등6부는 제3차 안드레 초청잔치를 8월 28일(주일)에 실시한다.
- ◆ 중등1부는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16일에 갖기로 하고 태신자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다.
- ◆ 중등2부의 이세상군이 수영대회에 참가해 금2, 은1, 동1을 획득했다.
- ◆ 고등부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10월 23일에 갖기로 하고 이번기회에 전 출석생이 태신자 한명 갖기 운동과 전교사가 읽은 양 한명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 ◆ 청년2부는 8월 21일(주일) 반별 친교모임을 갖고 회원간의 친교를 돈독히 한다.

- ◆ 장년1부는 9월 25일, 히브리서 전장을 대상으로 성경퀴즈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 에바다부는 8월 21일(주일) 예배 후 에바다부실에서 '사랑속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비디오를 상영한다.
- ◆ 사랑부는 사랑부 개교 6주년을 맞으며 9월 3일에 기념예배를 드리고 사진전시회, 그림전시회, 5년차 교사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수사랑 큰잔치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 제작

예수사랑 큰잔치를 홍보하는 공중전화 카드가 나왔다. 테이프 판매소에서 판매하며 2000원 권과 3000원 권 두 종류가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할 태신자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 김창임 목사님 : 21일(주일) 대치동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
22일(월), 24일(수) 충현기도원 여름산상집회 인도
23일(화) 농어촌교역자 초청집회 인도(천마산기도원)
26일(금), 27일(토) 전국장로회 수양회 설교(경주현대호텔)
- 신성종 목사님 : 23일(화), 25일(목) 충현기도원 여름산상집회 인도
2. '94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며 충현교회가 배가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3.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하시며 건강과 생업의 축복과 믿음의 복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4. 교역자,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5.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을 지켜주시사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대통령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이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죄악과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을 주옵소서.
6.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가정과 식구들을 보살피 주시사 건강을 주시며 언어훈련과 현지 적응이 잘되어 구체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며 칠전 우리 교회에 학생들을 보내주는 삼성농아원의 고아 4명이 가출했다가 붙잡혀온 일이 있었다. 4명중 3명이 우리 충현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었다. 왜 가출했는가 알아보니 엄마를 찾으려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제 중학생들인 그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과 엄마의 사랑이 너무도 절실하고 그리웠던 것이다. 두 주 전이었다. 농아원에서 교회오는 아이들 중 가장 신앙이 열심인 진희가 예배후 다짜고짜 내게 물었다. "전도사님, 왜 엄마 날 버렸을까요? 내가 농

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단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밥 한그릇 김치 한쪽 만은 못할 것이다. 내가 본 복지시설 중 삼성농아원 만큼 바르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곳도 드문 것 같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에 굶주려 있고, 농아원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 한 구석을 텅텅하게 만드는가? 학교를 졸업하고 농아원을 떠난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에서 취업을 시킬 때 공장 그만두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순박한 그의 대답이 마음 아프다. 다행히 이 농아인은 고아이지만 항상 뒤에서 아버지, 어머니처럼 도우시는 분들이 계신다. 회사에서도 부모님과 같은 이 두 분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도 농아협회에서도 가만 있지 않겠다고 하니 겁을 내고 최선을 다해 성의껏 일을 처리해 주었다.

누군가 우리 부모없는 농아 친구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한달에 3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다. 방학 때 단 하루라도 집에 데려와 가정의 따뜻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사랑, 따뜻한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정이 붙으면 그들을 만나는 시간도 더 늘리면 될 것이다. 또 그러다 마음이 열리면 부모처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찬양대 지휘자 청빙

충현교회는 한국교회음악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제시하고 이를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자 하는 유능한 찬양대 지휘자를 아래와같이 청빙코자하오니 뜻이 계신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아 래

1. 청빙요건
 - 1) 년 령 50세 이하
 - 2) 학 령 국내외 음악대학 졸업 후 교회 찬양대 지휘 경험이 있는 분
 - 3) 학 위 학위 소지자에게는 심사 및 청빙후 우대
 - 4) 교 단 제한없음(단 청빙후는 충현교회에 등록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1) 이력서 1통(사진첨부)
 - 2) 논 문 제목 : 한국교회음악에 대한 제언 (A4용지 4매이내)
 - 3) 추천서 당회장 혹은 교회음악계 교수급 인사
 - 4)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5-1 충현교회 기획실(02-552-8200)
 - 5) 마 감 1994년 9월 7일(수) 18:00시
3. 전형방법
 - 1) 서 류
 - 2) 면 담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 3) 실 기 직접 충현교회 찬양대 지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우리가 사랑해야할 사람들

"붙잡아주자"

이 준 우

(전도사, 에바다부 지도)

아이기 때문이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날 듣지 못하는 농아로 만드셨어요? 난 혼자 있는게 싫은데"

5년전 조그마한 꼬마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진희라 항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커진 키만큼이나 성숙한 질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널 농아로 만드셨단다. 그리고 기도하면 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꺼야" 정신없이 말한 이야기를 들은 진희가 "알겠어요. 전도사님 지금까지 교회 다닌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지요?" 마음이 아프다. 듣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부모도 없이 혼자 이 세상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든데...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

현실도 결코 이러한 아이들의 허전한 마음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농아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더불어 부모의 역할을 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한달전 농아성인이 양다리를 발길로 차여서 온통 명투성이에다가 살이 패여서 피와 진물이 나서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다. 공장의 작업 반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열중 쉬어 해놓고 구둣발로 수십 번을 걷어찼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화가났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알고보니 이렇게 맞은 일이 한번도 아니고 열일곱 번째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은 쇠파이프로 '엎드려 뺨쳐' 해서 맞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 왜 바보같이 가만히 맞고만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교회와 농아협회

오래 살아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능력을 우리 농아인에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이만 줄인다.